

성도의 빛 11

1977

회원 선교 프로그램
특집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1 1977

차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저마다 책임이 있느니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1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프랭크린 디리차즈 장로와의 대담-- 4
 손쉬운 선교 방법----- 7
 비회원을 위하여 가정의 밤을 가짐----- 7
 물문경을 선교지역으로 보냄----- 8
 성도의 벗을 선교 도구로-----10
 친구를 교회 모임으로-----11
 어떻게 간증을 전할 것인가-----스티븐 알 코우비-----14
 나를 개종시킨 시누이의 간증 -----주와 슬로팩-----16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어요-----17
 친구가 친구에게-----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18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20
 한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이 -----에밀리오 오 버젤리-----25
 선교사 정신-----제이콥 디오거 장로-----26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28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캐드린 에이치 입슨-----30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때-----스펜서 제이 콘디-----31
 나는 수감자들을 가르쳤다-----자네트 밀라-----33
 당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해주십시오--조지 디 더란트-----34
 회원 선교사-----레이드 로버츠-----36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38
 교회 및 지역 소식-----39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48호, 제13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7년 11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7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저마다 책임이 있느니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는 누구라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이것과 같으니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27년 4월, 176페이지)

여러 해 전에 나는 “교회 청년은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답으로, “예, 모든 합당한 청년은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젊은이가 모두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현재 합당하지 못한 젊은이는 지금부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 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이 유대인에게로다.”(교성 133:8)

그러므로 장로에 성임될 수 있는 연령의 교회의 젊은이는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간절히 배려야 합니다.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젊은이의 수는 교회의 해당 연령의 젊은이의 삼분지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분지 일은 “모든 젊은이”가 아닙니다.

“모든 젊은 여자, 모든 부모,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도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어린이, 모든 소년과 소녀가 모두 선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외국에 가서 봉사해야 한다거나 정식으로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성별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원은 각자 받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교성 88:81)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께서도 선교 사업은 모든 회원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말씀으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회 보고, 1959년 4월, 122페이지 참조)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회원이 아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의 말씀의 사자로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잠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아니고, 현재의 비회원인 이웃이 교회 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얻었을 때 그 진리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예!”일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한다고 경전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감란산에 오르셔서 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오늘날 그의 제자들도 같은 지시를 받고 있으며, 분명히 “땅끝까지”라는 그의 말은 모든 대륙의 주민과 온 세상의 모든 구석의

주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리니,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말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112:4)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땅,” “땅 끝까지,”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등의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미치는 필요 사항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개종자가 없다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경전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명령과 약속과 권고와 보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집합적으로든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계속해서 다음 절에 주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선교 사업이 참으로 주님의 사업이라면, (사실이 주님의 사업입니다마는) 또한 이 사업이 하나님의 권세로써 수행된다면, 왜 말일성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두려워 하고 주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그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렘 32:27) 나는 주님께서서는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그가 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선교 사업에 필요한 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기 초에 주님께서서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너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저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효과적인 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교리와 성약 112:19)

그러므로 선교사로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이 세상에는 뚫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어야 할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선교 사업에 관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진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단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바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신성을 확신시키는 것뿐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권능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그가 말씀해서 온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대로 들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의 말씀을 하늘에 띄워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진실로 선한 생활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보다 더욱 악하여지고, 성령의 즉사 임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바는 그의 자녀에게 그의 사업을 확신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자녀가 복음으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개심하여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과거의 죄의 길에서 몸을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개심’이며 생활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사실 사람을 개심시키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성신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성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며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심의 힘은 성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선교사요 회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개심의 과정에 불을 붙이는 점화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느끼고, 과거에 느꼈던 것에 대하여 간증하여야 하며, 또한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의 말을 구도자의 마음에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정도에 따라 커다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듯이 장막 바깥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

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 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고, 세상에서 강한 간증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의 죄가 보다 쉽게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교서 84:61 참조) 선교사 성구 중 가장 훌륭한 성구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 4편에서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선교 사업에 정진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2절)

또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5~16)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누가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되도록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친구, 친척, 이웃, 친지들을 가능한 한 빨리 복음 선교사에게 소개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도모하고자 기다리지 말고, 정확하게 완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바는 그들이 선택된 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29:7) 그들이 음성을 듣고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면 즉시 분명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듣지 않고, 회의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로써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면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의 우정을 계속 도모하고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들과의 우정을 잃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낙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잃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선교사의 방문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는다면 말해서 그 친구를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원은 그 가족과의 우정이나 특별한 관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교회에 입교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원은 훗날에 개종할 것을 위하여 우정을 계속 도모하고 재차 시도하여야 합니다. 즉시 효과가 없고 진전이 없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업에서의 인내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는 수백 가지나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놀라운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많은 구도자 소개 카드를 선교사들에게

주고, 회원의 집이나 가정의 밤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구도자를 소개하여, 선교사들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분주하게 가르치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가족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참된 목표는 회원을 찾는 것이고, 선교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과거의 선교사들이 당면하던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회원이 구도자를 찾아 우정 증진 활동을 계속할 때, 구도자가 침례를 받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거의 없게 되며, 침례를 받아 교회에 입교한 개종자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회원이 참여할 때 또 다른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관계일지라도 구도자들은 물론 특별한 건강의 신조를 갖고 있고(지혜의 말씀이 소개될 때 그리 놀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일요일에 낚시질이나 골프를 즐기지 않으며(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소개될 때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됩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에 기꺼이 헌금한다(십일조, 금식 기금, 와드 예산, 건축 기금, 선교사 기금 등등이 소개될 때 그리 놀라지 않게 됩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라움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될 때 침례받기를 꺼리는 마음도 보다 쉽게 극복될 것입니다.

회원은 가족 전체를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개인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 전체를 교회로 인도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개인보다 교회에 더 강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가족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을 모두 활동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때때로 가족의 한 두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의 자녀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사와 복음 선교사와 철저히 협력하고 교회 회원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가 마련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역원, 교사, 그리고 신권회와 보조 조직의 회원은 참된 빛을 산 위에 세워 온 세상을 비추게 하면서 각자의 조직을 질서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권협의 하에 선교 사업을 수행하여 구도자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교회의 활동을 활용하여 그들이 곧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충실한 회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로 교회에 입교한 회원과 우정 증진 활동을 하고, 친구가 되어 주며 격려하는 것도 교회 회원으로서 활동적이고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선교 사업의 하나입니다.

끝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당당하게 퍼져 나가... 모든 대륙으로 뚫고 나가고...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뜻깊은 계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그 음성은 이곳에서 온 세계와 세상의 모든 구석까지 퍼져 가야만 하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나니”(교성 58:64) *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방법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와의 대담

리차즈 장로: 선교 사업은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 기쁨을 가져 오게 되고 우리 자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동안 행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며,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곳에 물문경을 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침례받게 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들으려면 열 두 사람 정도에게 질문해야 겨우 한 사람이 대답할 정도입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방향으로 향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개종자를 만들어 침례를 줄 수 있게 돕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리차즈 장로: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여러분의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행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회원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장 귀한 질문이라고 부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좀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질문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해 보도록 권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차즈 장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이거나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이유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선택된 자는...나

음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29: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비회원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이 아니라 단지 택함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함을 받은 자를 알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선택된 자는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선택된” 자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니 1년 후까지도 선택된 자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어떠한 전환기에서 그의 모든 성품이 변화될 것이며... 그리하여 선택된 자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추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일생동안에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발전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성공을 약속해 주는 방법입니다.

1년 전 아이오와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우연히 유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과 자리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에게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는 “참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좋으냐는 나의 질문에 학생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고, 두 젊은 선교사를 보내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선교사들로부터 그 주에 그 학생과 그의 세 남매와 부모를 침례주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 나는 공항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물은 다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자네는 나를 물문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나를 잘 묘사하는 것일거야. 자네 물문 교회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나?” 그는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과 주소를 얻고는 교회 회원 두 사람을 방문하게 해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삼사 주 지난 후에 나는 훌륭한 경험에 대한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선택된 자들을 우리의 길에, 우리 근처에 놓아 두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당한 때가 있고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으냐고 물어 본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한다면 대부분이 좋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삼 개월에 한 사람 정도는 선교사와 공부할 수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회원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회원도 있습니다. 그 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리차즈 장로: 있지요! 그리고 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그의 간증은 값진 진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됩니다. 그 간증이란 곧,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리운 도구로서 그를 통하여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되었다는 것, 교회가 새로이 지상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머리에 예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여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완전히 잠그어질 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야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나는 늘 이 요셉 스미스의 간증 소책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이 소책자를 읽고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소책자로 인하여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일생동안 행해야 하는 이 선교 책임을 수행하는 데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리차즈 장로: 물론 있습니다. 구도자를 찾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구도자를 개종시켜 침례를 주는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일은 선교사들이 그들과 접촉하여 가르칠 때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일할 때 우리는 보다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이며(이것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우정 증진의 측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교회로 입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사회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의 생활 형태를 포기하고 친구마저도 포기할 때, 그들에게는 참다운 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되며, 일생을 통하여 지속하고 싶은 교제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이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워드 선교 책임자는 선교사와 보조 조직과 회원과 함께 즉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비회원인 존스 가족을 오늘 방문하여 가르치는데, 이 가족에는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두 선교사는 다음날 상호부조회의 두 자매를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존스 부인을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선교사들이 초등학교 직원 한 사람과 함께 와서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 관하여 설명해 주게 합니다. 다음에는 십대 청소년을 아론 신권 및 청년회나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에 초대합니다.

여러 해 전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지부를 방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상호부조회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대단한 상호부조회군요. 사바나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40 명 쯤 됩니다.”라고 한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집회에는 40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았는데요”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84 명이 참석했지요.”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하며 발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요 회원의 친구들로서, 모두 교회 단체의 우정 증진 활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정 증진 활동은 특별히 부분 회원 가족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스테이크에 약 450 명의 수련 장로가 있습니다. 약 60 퍼센트가 비회원과 결혼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회원 아내가 약 300 명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비회원 남성과 결혼한 회원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 150 명으로 추정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의 스테이크에는 대강 450 명 정도의 부분 회원 가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자녀를 더한다면 약 100 명은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가르쳐서 가정을 강화시키고 신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체 교육의 이점과 효율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이나 기도를 하지 않고 이들 450여 명을 청장년 부부 그룹, 중년 부부 그룹, 장년 부부 그룹 등의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몰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더욱 더 세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연령 층이라 해서 관심사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 직업, 또한 개인적인 관심사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룹끼리 짝을 지워서 가르칠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고등 평의원의 한 사람이 이같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교회에서 활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님과 같은 분들의 부부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형제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 오셔서 저를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고, 불쾌한 인상을 갖고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면으로만 말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와서 대화를 나누자는 청을 받아 본 것이 십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방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룹의 일원은 이 사람의 부부와 접촉을 갖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의 큰 도움이 사교면에서, 우정증진 면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복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속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① 구도자 가족 또는 부분 회원 가족을 위하여 매

일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합니다. ㉠ 그들을 교회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 초대합니다. 이번 주일에 초대하십시오! ㉡ 비회원 가족의 경우, 선교사와 첫째 주 동안 보조 조직 방문을 계획하고, 부분 회원 가족일 경우에는 가정 복음 교사와 함께 보조 조직 역원과 교사의 방문을 계획합니다. ㉢ 와드 회원과의 적합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 가족을 침례식에 초대합니다. ㉤ 가정의 밤을 계획합니다. 가능하면 부분 회원 가족도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 교회 모임 계획표와 선교용 소책자를 줍니다. 그러나 전부 한꺼번에 주지는 마십시오. ㉦ 지혜의 말씀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들읍시다. ㉧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 부부 회원의 경우, 감독과의 접견을 계획합니다. 감독은 개심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 회원이 있는데, 이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줄 수 있으십니까?

리차드 장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권고의 말씀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실생활에서 훌륭한 복음 생활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보다 사려깊고, 이해성이 깊으며 즐거운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복음의 원리를 가정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고 자녀의 생활에 그 영향력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가르침을 받는 그룹의 일원이 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같은 그룹에 있을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로 하여금 결코 자신이 외인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회원 배우자와 가족은 비회원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의 “하나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가족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정 증진 활동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크와 와드의 지도자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우정 증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근심스럽습니다. 우정 증진 활동은 모든 회원이 참여해야 할 분야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정을 증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주신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타주와 콜로라도주의 접경 부근에 있는 버날시에 있

을 때, 나는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게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잡화점에서 물건을 잘 찾지 못하여 썰썰 매고 있는 이 부인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자매가 물었습니다. 도움을 준 다음, 자매는 부인에게 여행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직장을 구해 보려고 콜로라도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찾아보시지 그러세요”라고 자매가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는걸요”라고 부인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건을 들고 저의 집으로 가지요. 직장을 알선해 줄 만한 사람들과 부인의 남편이 만나게 우선해 보겠어요.”

이 자매는 몇 군데 전화를 했고, 부인의 남편은 한 두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겨 접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장일을 돕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자매는 여기에서 일을 다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섯 명이나 되는 이 가족에게는 머무를 곳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자매는 이 가족을 그녀의 집에서 하루 동안 묵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가족은 행복한 가정 생활, 식사에 대한 축복 기도, 가족 기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와 세 자녀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자매와 그녀의 가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그들에게 그들이 안정되면 왜 이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일 후, 자매는 선교사들을 이들 가족에게 소개하였으며, 그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아 기쁘게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자매와 다른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종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은 새로운 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의 친구들과 생활 방식을 떠나 혼자 외로이 있게 되었다는 소외감입니다. 모든 회원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찾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교 모임, 집회, 운동 행사 등 무엇이든지 좋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새로 온 외인이라는 어색한 감정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부분 회원 가족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 함께 가르침으로써 새로운 우정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부분 회원 가족을 모아 배우자의 종교에 대하여 가르칠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배우고 나눌 때, 그리고 회원 배우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간증을 말할 때,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성공담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

손쉬운 선교 사업

교회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도록 해 주는
손쉽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며, 선
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음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넓힌 걸음의 폭을 빨리 재촉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길거리에 서서 냉담한 얼굴들을 향하여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리기도
하고, 혼자서 상상해 보기도 하며, 가가호호 소책자를 돌
리다가 또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접근했다가 거절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 보기도 하고, 이웃
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활동으로 인하여 이웃으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머리 속의 상상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 이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의 진실성을 의심한다거나, 교회
대관장님이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
셨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단지 간혹 우리가 소극적이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일로써
우리의 시간을 메우게 되며, 선교 사업을 하려는 순간은
달아나 버리고 말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이 선교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은 각 개성과 취향과
환경과 영감이 각기 다르듯이 그 방법도 많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돕는 일은 즐
거운 활동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진실로 바라는 바를 받
걸하면 우리는 모두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의 전형적인 선교 사업을 자연스럽게 탈피한 몇 가
지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누구
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일부이다. 이러한 프로
그램을 통하여 회원은 쉽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프
로그램을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란다. 아마 이외에도 여러
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선교사 역할을 머리속에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비회원을 위하여 가정의 밤을 가짐



이는 물론 의 참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생활 양식으로 보다
큰 행복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직접 설
교식의 권고를 받을 때보다 훨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도구로 이용되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
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말로써 설교하듯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회원 친구를 위한 가정의 밤을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선교사로서의 의무를 급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두
를 때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정의 밤을 계획하
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의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
회원 가족과 가정의 밤을 갖겠다는 마음은 의무감에서 보
다는 보다 완전한 우정과 가르치고 싶은 태도에서 자연스
럽게 우리 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와 친지들 중에서 어떤 가족과 우정 증진 활동

을 갖고 싶은지를 결정합니다.

2. 가족끼리의 소풍, 취미 또는 재능 등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나눔으로써 그 가족과 보다 친숙하게 지냅니다.

3. 적당한 시기가 오면(상황을 예리하게 판단할 때 여러분은 적시를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 저녁 때 그 가족을 초대하여 특별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4. 다른 활동도 이어서 갖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문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같은 계획에는 정직한 우정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걸치레나 속임수는 항상 가정의 선교 사업에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한 상태에서 매 순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비회원과 갖는 특별 가정의 밤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활동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족의 관심사 및 생활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와 예리한 감지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자연스럽게 행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을 보다 잘 알게 해 주는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필름이나 필름스트립을 처음에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복음에 관한 필름스트립은 조금 후에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간의 계획을 세움으로써 손님 가족에게 계획된 가정의 밤과 단지 텔레비전 앞에 모여 담소나 나누는 저녁과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계획 방법의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회 기도
2. 재미있는 노래
3. 정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등에 관한 간단한 공과, 또는 장기 자랑이나 토론
4. 게임
5. 폐회 기도
6. 간식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가정의 밤은 가족의 단합을 꾀하는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은 서로 다정한 분위기에서 가족 관계, 가족의 책임, 가족의 문제점, 가족의 계획 등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같은 특별한 가정의 밤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님은 복음이 가정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 복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 등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에게 가정의 밤 교재를 주어 그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할 수 있게 의견을 줍니다.

누구를 여러분의 특별 가정의 밤에 초대하겠습니까? 단지 이웃에 사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회원인 친척

직장 동료

자녀의 친구 가족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하여 질문한 가족 이웃으로 방금 이사온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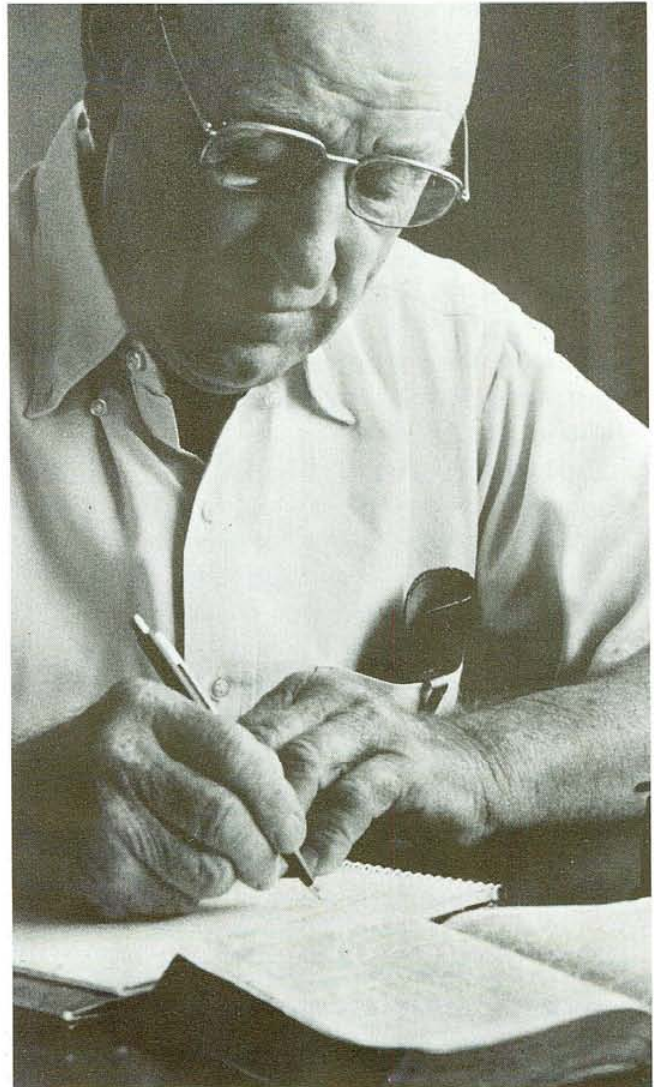
오랜 친구

자주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

가능성에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생활에서 오는 화평과 안전, 행복, 기쁨,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나눌 수 있는 특별 가정의 밤을 준비하여 다른 이와 우정을 시작함으로써 온 가족이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몬경을 선교 지역으로 보냄

가족대 가족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법



이년 전 동남 아시아에 살고 있던 십대의 한 소녀는 홍콩 선교부를 통하여 물몬경 한 권을 받았습니다. 물몬경 안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한 여인의 사진과 함께 물몬경이 참되다는 그녀의 간증이 곁들여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물몬경을 모두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자매는 이 소녀로부터 생전 처음으로 써 본 영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녀와 9명의 가족이 침례를 받아 교회에 입교하였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두 명의 동생들도 침례받을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대 가족 물몬경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종된 수천 가족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교회의 모든 칠십인 정원회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관하여는 1977년 지역 모임의 칠십인 분반 모임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가족 대 가족 물몬경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잘 알려진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물몬경은 강력한 선교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몬경은 이를 읽는 사람을 개심하게 해 줍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고도 쉬운 방법의 하나가 물몬경을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대 가족 프로그램인 경우, 물몬경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가족 사진과 간증을 물몬경 겹 표지 안면에 붙여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같은 방법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연히 물몬경을 손에 쥐게 된 사람은 물몬경을 한눈에 훑어 보고는 치워버리게 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한 권의 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그는 이 책이 그가 일생 동안 읽게 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의 한 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몬경을 펼쳤을 때 한 가족의 사진과 물몬경이 참되며 물몬경은 읽으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간증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갑자기 물몬경과 친숙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알고 있는 가족의 사진과 간증을 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더욱 물몬경을 읽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산 간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이 성스러운 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변경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대 가족 물몬경 프로그램의 목적은 (1) 교회의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가족에게 물몬경을 보내게 하거나 선교사에게 예상 회원을 찾는 데 사용하도록 마련하며, (2) 회원으로 하여금 이 예상 회원과의 우정 증진 활동으로써 가족 대 가족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족의 사진을 모아서 10.5×17 센티의 크기로 자른 흰색 종이 위에 사진을 붙입니다. 카드 아랫 부분에는 가족의 간증을 적습니다. 다음

에는 여러분의 와드 선교 책임자 또는 칠십인 회장으로 부터 “물몬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23가지 질문”과 “확인 카드”(이것은 모두 번역 출판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를 얻습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물몬경 겹표지 안면에 끼워 넣어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소가 수신인 주소로 된 봉투와 백지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이는 이 책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편지를 쓰게 하여 서신 연락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책이 준비되면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우정의 표시로 직접 선사한 다음에 후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선교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와드 선교 책임자나 칠십인 회장에게 책을 주어 여러분의 스테이크나 지방부 관내에서 복음 선교사나 스테이크 선교사가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명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그 사람에게 선물로 전하며, 특별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도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부 지역 내의 스테이크에서는 선교부장에게 26,000권의 물몬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 가족이 각자의 간증을 적고 가족 사진을 붙이는 것을 가정의 밤의 활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 접촉이 이루어진 가족으로부터 편지가 오면 때때로 그 가족에게 편지 보내는 것을 가정의 밤에서 행할 수 있으며, 다시 복음 선교사로 나가게 될 청소년이나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장성하고 있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의 이와 같은 교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크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반 어린이들에게 각자의 사진과 간증을 적어 오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보낸 책은 세계 방방 곡곡으로 흩어져 전달되었습니다. 한 권은 홀란드로 가서 10세 소녀가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소녀는, “마이 크에게, 이제 나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녀의 가족도 모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템플 스케어 방문자 센터에서 가족 대 가족 물몬경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빌 브래드쇼 형제는 7세 어린이로부터 받은 물몬경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천연색 사진을 붙였더군요. 붉은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의 귀여운 소년이었습니디. 카드 한 귀퉁이부터 시작된 그의 간증은 다른 쪽 위에서 끝났지요. 그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이 물몬경을 받으시는 분께, 제가 이 물몬경을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이 책을 제게 읽어 주시면서 참된 책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제게 편지로 알려 주세요. 제가 답해 드리겠어요.”

“언젠가 이곳을 찾은 사람에게 그 책을 주었을 때, 그는 소년의 간증을 읽자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물몬경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한 번은 물문경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비회원 과학자가 말일성도 과학자와 유대를 나누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학자와 가족은 모두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유타주 키언즈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600권의 특별한 물문경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 미망인 그룹도 이같은 방법으로 물문경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수많은 편지 회신을 받게 되었으며, 가정의 밤에서 그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편지 왕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공의 예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족이 행할 수 있는 좋은 선교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워드 선교 책임자나 철십인 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

성도의 빛을 선교 도구로

때 때로 우리는 선교 사업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낯선 사람을 가로 막고 설교하고, 택시 운전사에게 또는 버스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설교할 만큼 겁없고 정력적이며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반 말씀을 하고 싶어도 선뜻 하겠다고 반에서 손을 들지도 못하는 수줍고 소극적인 우리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사업은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를 우리는 알고 있으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선교 사업에 접근하면서 우리의 용기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의 주목적은 좋은 친구를 더욱 좋은 친구로 만들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성도의 빛을 (1) 때때로 친구에게 보여 주거나 (2) 선물로 장기 구독을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을 친구에게 쉽게 소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물용 특별 6개월 구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성도의 빛은 예상 회원에게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예리한 관점을 알게 해 줍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이같이 성도의 빛을 읽음으로써 예상 회원은, “어때? 이제 선교사를 만나보고 싶지 않나?”라는 설득을 받지 않고 조용히 침착하게 스스로 교

회를 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적극성이나 때 이른 조급함이 없이 사실과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와 같은 방법에는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며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비회원 친구들이 성도의 빛을 기쁘게 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의 빛을 친구에게 주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하게 언급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에 상대방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도의 빛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기사와 주제는 여러분과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도의 빛 특별호는 특별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달 전 어느날 교회의 한 회원이 동료 직원과 함께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오늘날에도 예언이 있다고 믿는다는 건가? 살아있는 예언자가 있다고 믿어?” “물론이지.”

“그럼 좋아. 그 예언자가 최근에 예언한 게 뭐가?” 지도자로부터 많은 권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 순간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내기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그 사람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수록된 책이 있어. 자네에게 가져다 주지.” 그리고는 다음 날, 대회 특집과 대관장단 메시지가 들어 있는 다른 잡지도 갖다 주었습니다. 비회원인 동료 직원은 교회 대관장의 말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달 복음을 나눔!

장기 구독을 선물로 해 주는 것은 성도의 빛을 날권으로 주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이며, 그 결과는 더욱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가르침에 접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에게는 친구에게 대화나 서신으로 그의 태도를 확인하고 진실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선물용 장기 구독은 고향을 떠난 가족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일, 결혼, 기타 특별한 때를 기념으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구독을 선물로 줄 때 일반적으로 우정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어떤 여인은 교회에 관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조용하게 강한 간증을 갖고 대답해 준 친구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되자, 특별히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그녀가 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읽을 책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교회의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 그녀가 필요로 했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돌려 주었어요. 잡지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이 모두 저의 입장에 꼭 부합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던 기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잡지를 대하고 나서 그녀는 그가 장기 구독을 선물로 준 것이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회원 가정이나 부분 회원 가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

“저는 교회 잡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참다운 교회로 인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준 것이 바로
 잡지였습니다.”



을 때, 교회 잡지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센트럴 워싱턴 스테이크의 한 스테이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분 회원 가족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비회원인 아내가 엔사인 특별호를 읽었는데 그곳에 실린 기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선교사 복음 토론을 받고 있으며 곧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물용 장기 구독 신청 방법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의 잡지를 받아 읽게 되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친구를 여러 명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규 1년 장기 구독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반 가격으로 특별 6개월 구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중 어느 때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 절기가 가까와 오는 이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호에 첨부된 특별 신청 양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물용 장기 구독의 첫 호에 여러분은 이 성도의 벗이 여러분이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카드를 첨부해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의 벗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 선물은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와 공부를 시작한 지 7년만에 침례를 받은 회원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교회와 접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수단은 교회 잡지였다고 합니다. 낙담했을 때 그는 교회 잡지에서 많은 힘과 지침을 발견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만 항상 교회 잡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참다운 교회로 인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준 것이 바로 잡지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

친구를 교회 모임으로

친구를 주일학교나 성찬식 모임이나 상호부조회나 활동의 밤이나 기타 모임 등에 초대하십시오!

기초 복음반은 그들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음 토론에 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반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비회원과 관계를 맺을 때,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교회 모임으로 초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같은 경우, 아마도 여러분이 그들을 처음으로 초대하게 될 모임은 주일학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는 복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

던 기초 복음반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은 “구도자 찾기” 과정이 지나고 “가르치기”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입교한 회원은 기초 복음반이 효과적인 선교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옆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교회 회원과 늘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만 있으면 그에게 저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이나 잡지를 갖다 보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쁘게 나와 이야기를 하였지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나의 머리 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생각을 가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날 그는 “다음 주일에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나? 주일학교 반이 있는데, 아마 우리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줄걸세. 나보다는 나을거야. 몇 번 계속해서 참석해 봐서 자네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잘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도해 보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게 권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음 주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제게 유익한 반이었습니다. 두 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저는 전반적인 것을 통일성있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아! 그렇지! 그래 알겠어! 맞아, 바로 그거야!” 등의 감탄사가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보다 서너 발자국 앞서 있었던 것같이 생각합니다.”

기초 복음반은 새로 개종한 회원들을 위한 복음 입문반이며, 새로운 재활동 회원에게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반인 동시에 구도자, 즉 선교사와 공부부를 하고 있거나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반이기도 합니다.



이 반은 주일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반입니다. 그러나 조직화된 선교 사업을 이어주는 와드나 지부의 철십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반은 철십인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기초 복음반에 대하여 말할 때, 성인을 위한 다른 주일학교반과 비교하면서 이 반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성인을 위한 과정인 복음 교리반에서는 8년을 주기로 하여 모든 경전을 완전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몰몬경의 전반부를 마치게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몰몬경 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2년 동안 교리와 성약과 교회사를 배우고, 다음에는 값진 진주와 구약, 그 다음에는 신약, 그 다음에는 다시 몰몬경을 배우게 됩니다. 8년 동안의 주기가 계속되어 경전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 복음반은 다릅니다. 이 반에서는 12 주간의 공과를 통하여 기초적인 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반은 본격적인 복음 연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반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가 12 주간의 주기 중 언제 들어오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공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자가 일곱번째 공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으면 12과까지 끝내고 다시 1과부터 6과까지 공부하더라도 전혀 공과 순서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과는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도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배웁니다. 신전과 신전 의식, 가족의 영원성, 순종에 따르는 축복 등에 관하여 배웁니다. 또한 간증에 대하여 배우고, 교회는 회원을 돌보기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예상 회원이 말일성도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움으로써 많은 혼란이나 상해를 없애게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구도자는 오래된 회원에게는 일상적인 말이지만 새로 온 사람에게는 낯선 용어인 “감독” “고등 평의원” “병자 축복” “금식 기금”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웁니다.

가족이 교회 조직의 하나이며,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배우게 되며, 신권 조직과 보조 조직의 구조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

친구에게 기초 복음반을 복음으로의 안내 여행으로서 소개하면 여러분의 친구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기쁘게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에 참석하는 사람은 훌륭한 가르침, 간결성, 간증, 우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친구를 주일학교에 초대하는 경우, 우선 기초 복음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에서는 기초 복음반을 계속 갖고 있지만, 때때로 12 주간의 공과를 마치고 한두 주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했으면, 첫번째 반에 함께 참석하여 친구를 교사와 다른 반원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 복음반에 함께 참석해 주느냐 마느냐

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종 여러분의 존재가 친구로 하여금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게도 만듭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으로 들어 가서 친구가 아무의 압력을 받지 않고 조용하게 교회를 관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여러분이 있어 주기를 바라면 항상 그와 함께 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과 함께 기초 복음반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일어났던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몰몬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내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할까 두려웠습니다. 몰몬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이웃 사람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그가 수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약간 겸연쩍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단짝이 되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기초 복음반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웃 사람을 크게 실망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녀는 그런 내색을 해 보이지 않았지요. 여덟 공과를 공부하면서 저는 전혀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녀와 계속 교회는 참석했지요. 하지만 어느 일요일 집에 돌아 와서는 잠시 동안 곰곰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은 것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내 생활에 대한 철학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과 인생에 대한 소망이 커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어요. 내가 그녀를 불러서,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몇 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회원 친구와 참석할 때, 여러분의 참여와 간증이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반 토론을 주도해서는 안되며, 공과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모호한 질문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손님은 보다 단순한 원리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한 호스에서 물이 전 속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두 개의 호스를 한꺼번에 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역원에게 하신 말씀, 1972년 10월 7일)

친구를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초 복음반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반은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반은 예상 회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교량의 구실을 합니다.

*

어떻게 간증을 전할 것인가

스티븐 알 코우비



간증이란?

때때로 나는 간증의 힘에 놀라곤 한다.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친구에게 하는 말보다 조금 더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말의 힘이란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일례를 들면, 내가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주님은 각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각 사람에게는 각기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지침과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등등의 간증을 말하였다. 간증이 끝난 다음, 몇몇 선교사는 내게 와서 다시 꼭같은 간증을 들려 달라고 청했으며,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청하기도 하였다. 나의 간증을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안도와 기쁨의 감정으로 거의 흥분 상태였다.

여러 번, 선교 지역에서 구도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난 후, 또는 교회 모임에서 회원을 가르칠 때, 또는 나의 사무실을 찾아 온 상담인에게, 또는 비행기에서 만나게 된 낯선 사람에게 구세주의 실재와 그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싶은 느낌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간증을 드리면 내 전신을 빛과 사랑과 능력이 흐르는 것같은 느낌을 갖곤 하였다.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후에 나는 종종 영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기적적인 영향력에 놀라곤 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나에게 역시 같은 영향을 주었다.

왜 간증을 드리는 것이 그토록 힘이 있으며 필요한 것일까?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가 머리에 떠오른다. 첫째, 간증은 인간 대화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성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의미와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

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성 50:22) 주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여 그대로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간증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이라는 것을 덜 느끼게 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많은 영원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 “순수한 간증”은 망각의 장막의 벽을 얇게 하여 전세의 영으로서 지냈던 지식을 생각나게 해 준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의 집”에 있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뚜렷한 진리는 모두 영의 기억이 되살아 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이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셨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셋째,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고 분명하여 깊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갈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그 속도마저도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정적인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변치 않는 진리가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무쌍한 모든 힘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편견이나 냉소와 같은 방어책을 쌓고 싶어한다.

진실한 간증은 이같은 불필요한 방어책을 없애고 우리 자신의 감주를 마련해 주며(교성 27:15~18 참조), 듣는 이에게까지 불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준다.

어떻게 간증을 드려야 하나?

이에 대한 대답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치를 둘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열

가지의 지침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영에 의하여 영으로 간증을 드린다. 시간이 때때로 문제가 된다. 분별의 영을 개발시키고, 간증의 영을 갖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할 때와 방법을 알게 된다. 영이 임재하지 않을 때,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하여 의심이 가질 때, 개인의 생활이 말과 부합되지 않을 때, 간증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14)

간증에는 분명히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간증은 감정이 상의 것이다. 따라서 자기 본위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지나친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간증은 우리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것이다. 간증은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말로 “나는... 입을 압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도 안된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된다.

간증은 복음을 설명할 때와 같은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말하는 것이다. (요 13:34~35 참조)

2. 충만한 사랑을 느낄 때 간증한다. 사실 사랑을 갖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간증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르치고,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강조하고, 이해시키며, 함께 걷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면 빛과 진리를 크게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처음 여섯 가지를 행하고 나머지 4가지는 행치 아니한 많은 부모, 교사, 회원 선교사는 이 열 가지를 모두 행했을 때 발휘되는 힘에 놀랄 것이다.

권능을 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성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친절과, 설득과, 자비와 거짓없는 사랑 등을 행사하는 권능자의 간증은 내적인 힘이 단지 직분에 의해서 말하는 간증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크다.

김블 대관장님은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므로 그 간증이 당당하고 직선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람을 꾸짖지 말고 간증한다. 간증을 드리는 목적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있는 것이지 꾸짖는 데 있지 않다. 경전상에는 영혼을 꾸짖기 위하여 간증을 드린 예가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인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축복받게 하는 데 있지,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4. 때때로 영의 인도에 따라 특별한 개인의 가치와 개성에 대하여 간증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의 능력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고, 순종하기로 택한 자유와 권능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다.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나는 새로운 개종자 각 사람에게 개종하게 된 과정과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를 써 달라는 편지를 보냈었다. 절반 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적한 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메시지의 진실성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가치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나 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한 개체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강한 무엇인가가 그들을 풀어 주고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가치와 참된 성품에 대하여 간증할 때 그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

5. 성신의 인도에 따라 간증한다. 간증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간증은 이미 받은 진리에 대하여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찾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지적인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진리에 대하여 진실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발견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때를 기억한다. 그들은 실제로 담배나 홍차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따르면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간증과 아울러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이더 12:6)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에 그들의 습관을 극복하였으며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였다.

6. 중중, 여러분이 영을 느낄 때 이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도 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개념을 갖고, 보다 극적이고 신비스러운 것을 바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도를 지나쳐”(야 4:14) 기대하고, 세미한 소리의 조용한 화평과 융화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만다.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문경을 상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7. 간증을 드릴 때 적당한 간격을 두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보이드 케이 패키 장로가 뉴 잉글랜드 선교사들에게 친절히 발표하는 것과 특히 간증을 드릴 때 영이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며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서서, 회중을 바라 보고는 천천히 간증을 하시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

8.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표현을 사용하여 간증한다. 비회원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교회 용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여 대화의 장벽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간증”, “성찬”, “신권”, “가정의 밤”, “와드” 등과 같은 용어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그밖에도 많이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데 망설이지 않듯이,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것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 그의 예언자들도 그러하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나의 영육이 간결함을 기뻐하며, 주 하나님께서 이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역사하심이라. 주 하나님께서 총명의

빛을 주셨음으로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각각 저들의 언어와 총명을 가리시어 말씀하시느니라.” (나이 31:3)

9. 자신을 준비한다. 간증의 영을 특별히 간구한다. 간증을 발표할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한다. 금식과 회개로써 자신을 겸손히 낮춘다. 매달 갖는 간증 모임이 금식을 하고 성약을 새롭게 한 후에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모임에서 간증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뜻만을 표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예언자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는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확신을 말하는 간증이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 태도 자체가 가장 분명한 간증이다. 특히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칠 때에도 의롭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간증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는 바를 반영시켜 준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간증을 드릴 것이다.

10. 간증한다. 자주 간증한다. 매달, 매주, 매일 간증한다. 공식적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든지 간증한다. 간증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자라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개인과 가족과 국가까지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이 소수의 누룩과 같은 영향력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약화된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의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겠는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 5:13 참조)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 함이니라. 저들이 내게 더욱 충실하지 아니하면 가진 것 마저 빼앗기리라.” (교성 60:2~3) *

나를 개종시킨 시누이의 간증

쥬와 슬로펙

다음은 나의 개종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상한 꿈도 꾸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성신의 힘으로 드리는 강한 간증을 들었읍니다. 그 간증이 나의 생활을 변화시켰읍니다.

나의 남편은 시대 식구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읍니다. 근처 지부의 주일 학교와 금식 간증 모임에 나가서 좋은 느낌을 받곤 했지만 교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읍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교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읍니다. 사실 이 일로 늘 시아버지와 대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번 토론하고, 스스로 일반 서적과 성서를 공부한 후 남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진리와 주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읍니다. 그후부터 그는 나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노력하였읍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열심이 동기였는지 아니면 나의 안일한 생활 태도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뭏든 나는 남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읍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상스러워졌고, 가끔 심한 언쟁을 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갑작스레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미룰 수 없는 집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복음에 대하여 토론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일

을 하고 있을 때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언니, 오빠가 침례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우?”라고 말했읍니다.

“글쎄,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라고 나는 대답했읍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지요.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나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언니, 너는 그것들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복음의 진실성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시누이의 간증은 나를 떨리게 하였읍니다.

바로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나는 몇 주 후에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하였읍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모든 과제를 기꺼이 행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나도 놀랄 정도였읍니다. 나는 물론경을 읽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배웠읍니다. 나는 인생의 계획을 어렵게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복음이 간결한 것에 여러 번 놀랐읍니다.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논리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하여 나는 교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받았읍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천사도 나타나지 않고 놀라운 꿈도 꾸지 않았지만, 나는 요셉 스미스가 이 말일에 우리에게 가져다 준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1967년 1월 21일, 나는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았읍니다. 시누이의 간증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읍니다. 그후 나는 영감에 찬 간증은 많은 일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이제 나는 수많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은 살아 계시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참된 교회임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웨이드 홈스테드는 일생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11세 소년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통찰력과 이해력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접견을 할 때가 되었을 무렵, 그는 이미 집사와 소년단원이 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끝마칠 즈음에 우리는 선교 사업과 그의 장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활동 회원인 그의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회장은 나에게 그들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웨이드에게 선교사의 역할을 하여 그 어린이들을 초등학교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웨이드는 승낙했습니다.

다음 주, 초등학교를 막 시작하려 할 때, 참석하지 않던 어린이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안이병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후에 웨이드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오게 했니?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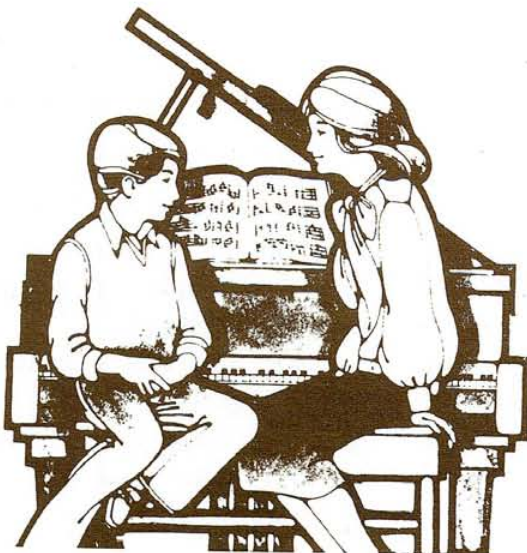
웨이드는 이상한 듯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헤이니 자매님, 전 그냥 그 애들한테 초등학교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상기시켜 주는 일뿐이었어요."

칼라 헤이니, 초등학교 회장

보다 나은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홉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친구나 이웃 친구 중에서 비회원 친구를 택합니다.
2. 친구와 더욱 친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3. 친구를 초등학교나 주일학교 또는 성찬식에 초대합니다.
4. 여러분의 부모를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5.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친구의 어머니를 상호부조회로 초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6. 친구에게 교회 서적을 보내주거나 잡지를 구독하게 해줍니다.
7. 친구의 가족을 초대한 가정의 밤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간증을 말하게 하여 그들에게 들려 줍니다.
8.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더 배우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9.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물문경이나 선교용 소책자를 주고, 와드나 지부의 지도자에게 그들의 관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타리 딜, 11세 (22페이지에 계속)





친구가 친구에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얼마 전, 칠레 샌디아고에 있는 선교 본부의 부엌 창문 밖을 우연히 내다 보았습니다. 집 너머로 큰 영국산 호도 나무가 서 있었는데, 나무 밑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두 소년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온 끝이라 소년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 보는 나를 본 소년들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나의 아들 크리스와 그의 친구 데이비드인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가 웃을 때 보인 흰 이는 초코렛 케익 위에 얹은 여섯개의 작은 마시멜로우 과자와 같았습니다.

후에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 데이비드는 집으로 돌아 갔을 때 나는 크리스를 이층으로 올려 보



내 목욕을 하게 하였습니다. 크리스를 깨끗하게 목욕시키려면 욕조의 물을 세 번은 갈아야 할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물을 삼으로 긁어내듯 해야 할 것이고, 두번째로는 끈적끈적한 진흙을 바게스로 퍼내듯 해야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한 다음 세번째 비로소 하수구로 씻어내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크리스가 잠시 몸에 물을 축인 후에, 나는 정말로 크리스를 깨끗하게 씻겨 주기 위하여 들어가서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쪽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 크리스는 아직 씻지 않은 더러운 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야! 아빠, 손이 깨끗하니까 참 좋다”라고 크리스가 말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쓰레기나 진흙이 아니란다. 도둑질을 하거나 친구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고의로 때리거나, 부모님께 하겠다고 말로만 대답하고는 실제로 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순종하는 것 등이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란다. 이런 것은 비누나 물로 지워질 수가 없다. 이러한 더러움은 항상 붙어다니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이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나는 더러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하거나 놀면서 손에

묻히게 되는 더러움입니다. 이러한 더러움은 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움”은 나쁜 일 곧 죄를 범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움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여 잘못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손과 마음이 깨끗해 지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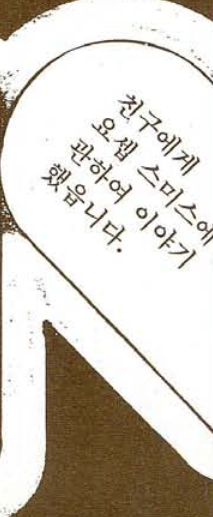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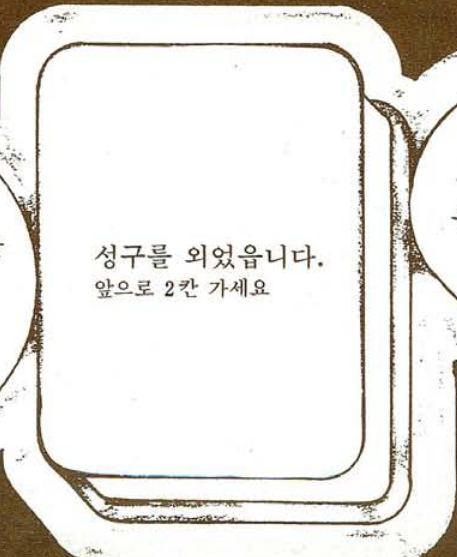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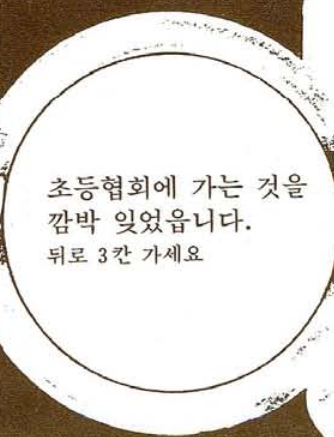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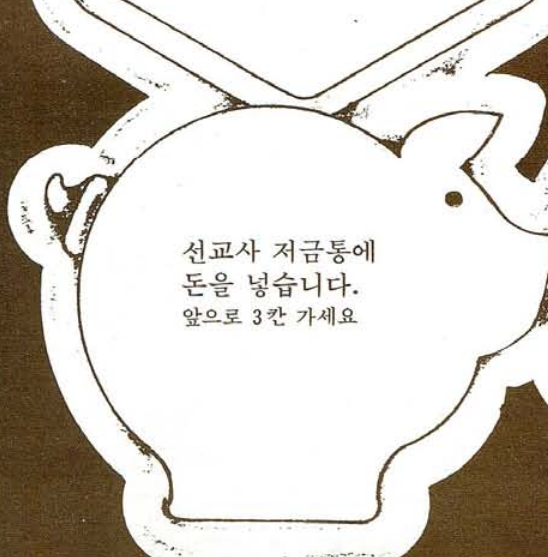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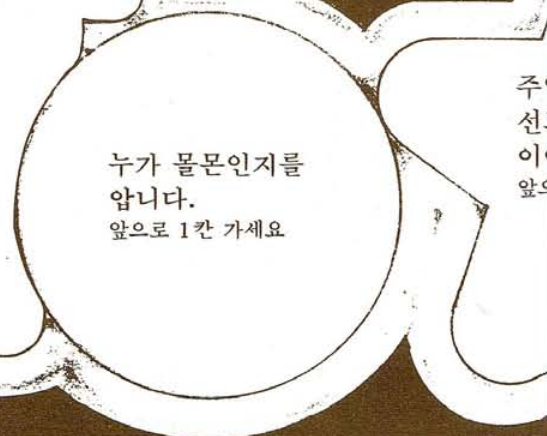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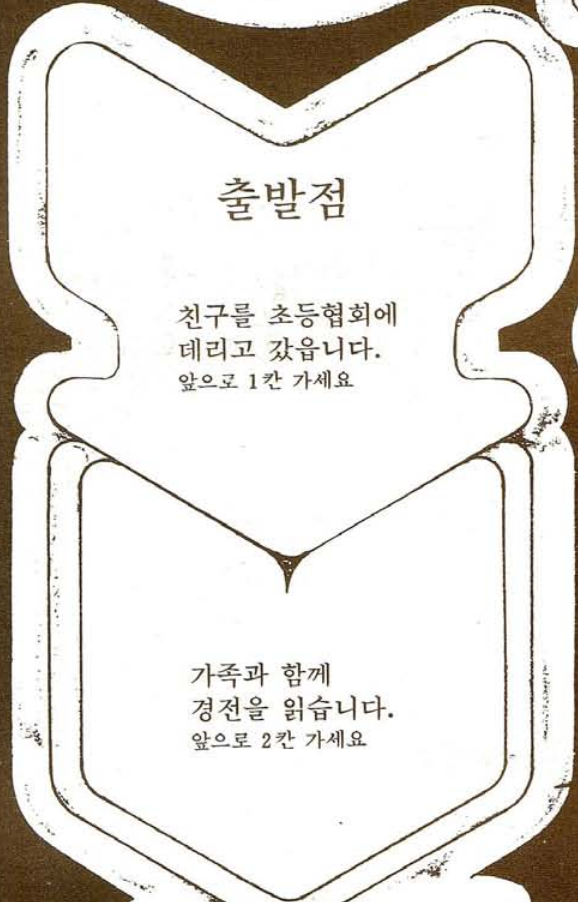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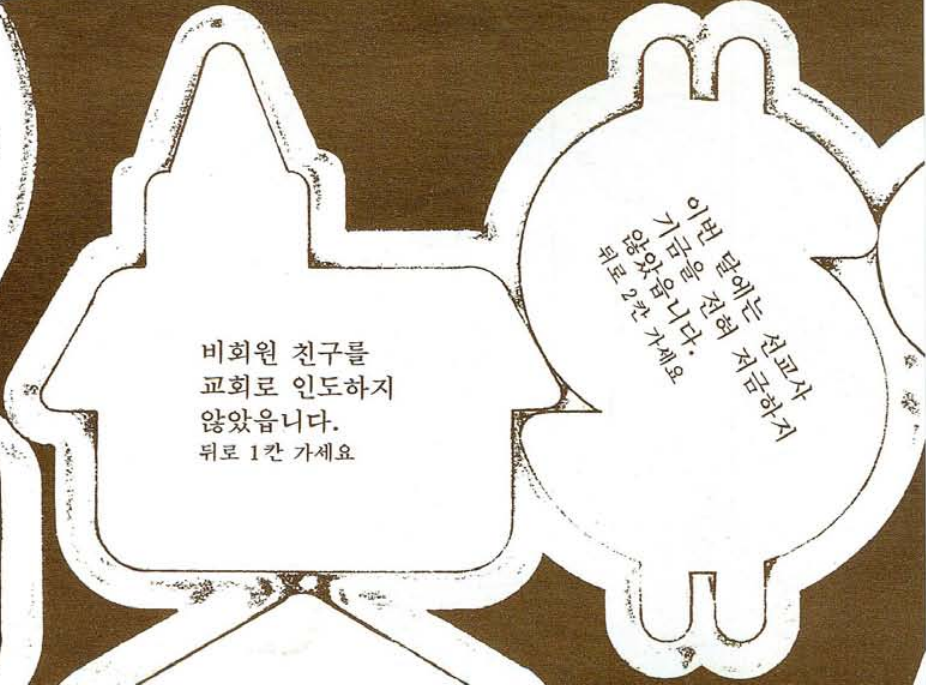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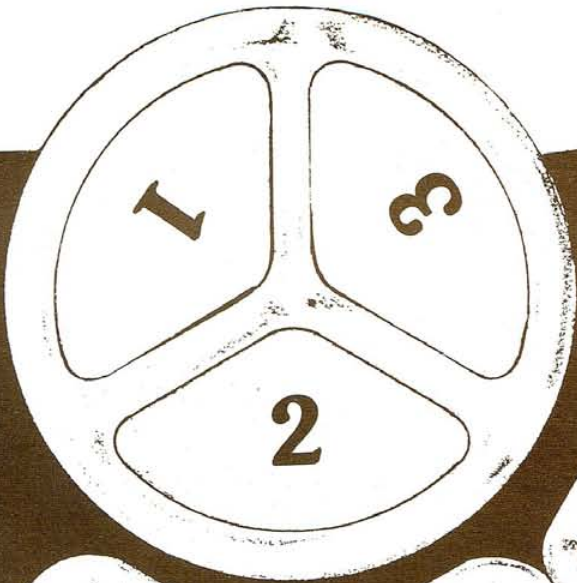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교성 88:86) 주님이 회개하여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 죄는 용서되었나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교성 110:5)

여러분은 일을 하거나 놀거나 해서 흔히 손이 더러워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씻어버리고 싶고 씻어버려야 할 더러움이 단지 이러한 더러움만이기를 바라며, 결코 죄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와 다른 모든 어린이에게, 혹시 죄에 빠졌을 때라도 참된 회개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주선 이 앞

게임 방법: 각자가 옮겨 놓을 말을 준비합니다.
원형을 올려서 접시 밑에 놓습니다. 원형 위에
던질 말을 또 하나 택합니다.

차례대로 번갈아 원형 위에 말을 던져 지시된

숫자대로 말을 옮깁니다. 잠시 쉬고 다음 차례를
기다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작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칸 가세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었습니다.
뒤로 2칸 가세요

친구의 침례식에
가보았읍니다.
앞으로 1칸 가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여
입니다.
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읍니다.
뒤로 2칸 가세요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읍니다.
앞으로 3칸 가세요

새로 전학 온 소년이나
소녀에게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앞으로 1칸 가세요

로 3칸 가세요

친구를 초등학교에
데려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뒤로 3칸 가세요

성찬식에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있었읍니다.
앞으로 1칸 가세요

신앙개조를
외웠읍니다.
앞으로 2칸 가세요

(17페이지에서 계속)

모든 사람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졌던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레슨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저의 선생님은 제가 말일성도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슨이 끝나자 선생님은 레몬 주스를 주면서 어떻게 그 장로들을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제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전에 그 장로들이 자기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을 집안으로 맞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신앙개조 제 1 조를 외웠습니다. 저는 또한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던 것과 그가 교회의 초대 대관장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해서 걱정했지만, 선생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 피아노 레슨 시간마다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규율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피아노 선생님께 복음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도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 브림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0살이었을 때, 제 친구 캐디가 저에게 초등학교에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필요없고 또 호기심도 생겨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는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시작이었습니다. 그후로 초등학교 가는 날인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배우고 싶었고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점차로 저는 복음의 첫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가 전에 속해있던 교회와 주일학교는 그다지 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곧 영국 국교의 견진 성사반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르치는 공과는 제게 혼란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기가 죄를 입고 태어난다는 교리에 무척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동생을 가진 저는 제 동생이 어떻게 이 미 죄를 범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저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해하시고 캐디와 함께 주일 학교에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이 저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저와 어머니는 선교사 공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지만 저에게 침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13번째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훌륭한 친구 캐디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교회에 관하여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던 초등학교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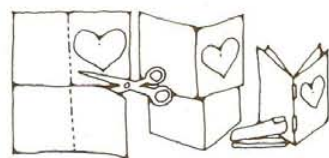
샌디 탠디

약 4년 전에 니드쯔비드쯔 가족이 길 맞은편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곧 그 가족과 친해졌는데, 특히 그들의 딸 데비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저는 데비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후로는 거의 한 주일도 빠뜨리지 않고 저와 함께 데비는 초등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데비의 집으로 놀러 가면 데비의 어머니는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 보시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데비의 가족은 우리와 함께 주일학교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약 두 달 전 초등학교에 앉아 있던 데비는 갑자기, “아빠가 그러시는데, 우리 이달에 침례받을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니드쯔비드쯔 가족은 침례를 받고, 지금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로리 리쉬



나의 선교사 일지 유의 사항

선교사 일지를 만들기 위해서 잡지에서 페이지를 뜯어 냅니다. 페이지를 수평으로 절반 자른 후, 표제지를 위로 놓고 수직으로 반을 접은 다음 가운데를 호치키스를 이용하여 묶습니다. 이제 훌륭한 선교사 일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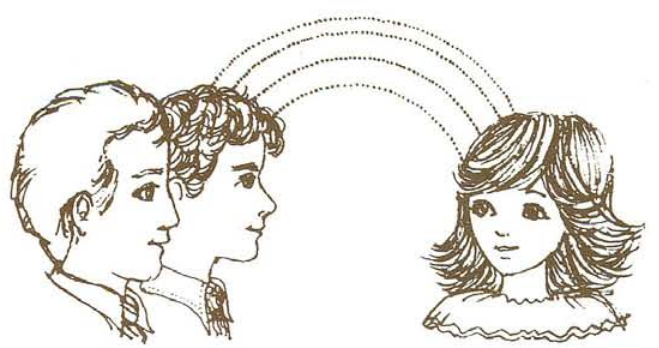


“모든 회원은 선교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내 친구가 관심을 보이면, 나는

1. 기도하겠다.
 2. 그를 우리 집에 초대하여 재미있게 놀겠다.
 3. 내 친구를 교회 모임에 데리고 가겠다.
 4. 친구에게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주겠다.
 5. 친구의 가족이 선교사의 방문을 기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나 가정 복음 교사에게 말하겠다.
- 기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내 친구 각자에 대하여 생각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일을 할 특별한 친구를 정하겠다. 나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겠다.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면 계속 그 친구에게 노력을 기울이겠다. 내 선택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친구를 택하겠다.

내가 택한 친구의 이름은

내 친구와 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1.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기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2. 친구를 워드 파티나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한다.
 3. 친구와 함께 가정의 밤을 갖는다.
 4. 친구를 가족 소풍에 데리고 간다.
 5. 친구를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 초대한다.
- 기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이

에밀리오 오 버젤리* 장로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 남 선교부

약 40년 전,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근교에 있는 마을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다섯 자녀를 둔 자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나 주님은 그녀를 도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중 막내 아들은 선교사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 그의 마음속에 새겨 두었다. 이 어린이는 장성하였으며, 그의 간증도 커졌다. 후에 그는 현숙한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었으며, 자녀도 갖게 되었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봉사하였다. 와드 감독으로도 봉사하였으며, 현재는 그가 살고 있는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 중의 하나는 그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많은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부친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아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설명을 하겠다.

두 달 전, 동반자와 함께 탠달시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아야겠다고 느꼈다. 문을 두드리자 여인이 나왔다. 우리가 누구인지 소개하기도 전에 그녀는 우리를 보고는, “물론이지요? 결국 오셨군요.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떤 주소로 편지를 써서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었으나(그러나 그 주소는 잘못된 주소였다고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답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가 그집(우리가 그녀를 발견한 집)에 살고 있지 않고 방문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집으로 와 주면 교회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어느 서늘한 가을 아침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녀가 알려 준 주소를 찾아 갔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가르샤 부인과 세 명의 자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 우리는 누추한 집으로 들어가 첫번째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방은 덩그렇게 커서 약간 추웠지만 우리 앞에 앉은 여인과 세 명의 자녀는 열심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설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이리라.

첫째 공과를 마친 후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느꼈다.

다음 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가르샤 부인은 10살된 만 아들, 알베르토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동반자와 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선택된 가족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영원한 보화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번째 공과를 가르칠 때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나의 동반자는 침례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가르샤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만아들의 손을 잡고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가족이 일생 동안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공과를 모두 마쳤고, 결국 가르샤 자매와 그의 아들 알베르토가 침례를 받기로 된 기다리던 날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받았다.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기쁨을 느껴 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그와 같은 감사를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어린 알베르토의 손을 잡고 침례의 물 속으로 그를 침수할 때 나는 이 소년이 받은 영원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젊은 청년의 모습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그날 늦게 나는 내 침실에 조용히 앉아서, 가르샤 자매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할머니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나의 아버지께서 끝까지 충실하게 복음을 지키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내 인생의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가르치도록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은 또 다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또한 개종한 사람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을 침례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사과속에 있는 씨의 수는 셀 수 있어도 씨앗 하나에서 나오게 될 사과 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현명한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선교사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젊은 말일성도의 생애에서 이 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단 한 사람으로 온 나라의 백성이 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적은 수의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알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

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주제로 지방 대회를 가졌을 때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로 왔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구도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모릅니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란 단지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연결시켜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많은 회원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선교사 정신은 주님의 정신이며, 그것은 단순한 것이다.

선교 사업은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진실한 회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우리는 어떻게 이같은 선교사 정신을 지닐 수 있는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1.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킨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수행하지 못하고는 형제를 “강화”시킬 수 없다. (눅 22:32 참조) 구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2. 간증을 가진 다음에 취하는 단계는 교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교사 정신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전 추천서를 받을 만큼은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임에서 선교 사업을 강조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드릴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모임을 빠져 나오고 싶기까지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십일조를 바치지 않거나 가족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등이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3. 선교 사업의 정신을 매일 기도으로써 간구해야 한다. 이 정신을 간구하지 않으면 결코 이를 받을 수 없으며, 영

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없으므로, 나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다음에 일상 생활을 할 때 분별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분별의 영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등을 우리에게 속삭여 준다. 나는 사업 일로, 지금은 교회 일로 여행을 많이 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즉석 가르침”이 효과적이라는 철학이었다. 우표를 사기 위하여 우체국에 줄을 서 있을때, 버스 정류장에서, 간이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가족 우정 증진 프로그램은 장기간에 걸쳐 깊은 우정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즉석 가르침”은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선교사로서의 방법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을 알아야 한다. 성신은 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기도로 간구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경험을 통하여 얻은 복음 선교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불임성 있는 사람. 그는 여러분이 물몬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뻐한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합창을 전파를 통하여 들어 왔던 것이었다. “리차드 이반스라는 분은 참 훌륭한 연사시더군요”라고 말하고는 잠시 후에 실례하겠다고 말하고 가버린다.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주님이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그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 선교사에게 소개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그에게 가르칠 책임은 없다. 단지 선교사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2. 활동적이고 말을 많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야기

선교사 정신

제이콥 디오거 장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족, 취미, 사업 등등에 관하여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의 영은 그의 말 중에서 복음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순간을 지시해 줄 것이다. 특히 그가 강하게 느끼는 것이면 더욱 좋다. 자녀가 어렸을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 생각한다. 나는 “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3.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자꾸만 말을 중단시킨다. 관심이 있다고 말하다가 없다고 말한다.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는 물문의 입장은 어떤지를 알고 싶어한다. 많은 회원은 이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황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 줄 필요는 없다. 그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 줄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설명해 주는 선교사를 소개해 주어도 좋겠느냐고 물어 봄으로써 그같은 문제에 대처하면 된다.

4. 네번째 종류의 사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친절에 기뻐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교류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몇 가지 선택할 것을 주면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선교 사업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임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지금 당장 메시지를 받아들일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고, 선교사들과 공부하면서 좀더 배워 보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5. 자주 대하게 되는 다섯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더 많은 설명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왜 우리가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직접 경전을 참고하면서 좋은 말씀을 인용해 주고, 그 성구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좋은 방법임을 발견하였다. 선교사와 만나 진지하게 토론을 하자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가져다 준다.

6. 과묵한 사람은 약간 다르다. 팔장을 끼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묵묵히 앉아 듣기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보기 보다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 인내심을 기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때로 우리가 무척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면서도 미처 할 말을 못하는 때가 있다. 디오거 자매와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면,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

7. 다정하기는 하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긴 했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생활을 바꿀 생각은 없오. 좋은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귀여운 자식들도 있으니, 더 바랄 것 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섬짓하게 만드는 주제였다.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8. 선입견을 가진 사람. “물론이세요? 물론을 알고 있죠. 일부다처자들이지요. 교회에다 수입의 10퍼센트를 바치도록 강요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미국에 머물어 있느니 보다는 오히려 젊은이를 외국에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와 같은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다정스러운 태도로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말한다. “물론으로서 저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는 당신이 어떻게 그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면 좀더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9. 열성적인 사람. 진리를 찾고자 간구하여 온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간증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사람은 선교사를 기꺼이 맞아들인다. 물론 이러한 사람은 위에 열거된 사람보다 극히 드물다.

물론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군인 대회를 마치고 필리핀의 바기오에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였다. 비행기는 공항에서 지체되었다. 영어를 모르는 두 명의 불란서 여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로 가서 “어디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다. 나와 같이 마닐라였다. 우리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당연히 그들은 왜 내가 이 지역을 왔는지 알고 싶어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의 왕국이나 모로나이 천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명함을 주고는 선교사와 접촉을 가질 것을 권했다. 이 씨뿌리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알 필요도 없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행복을 느꼈고 나를 도와 주시는 주님의 영을 느낀 것뿐이다. 이러한 행복감은 원하기만 하면 매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 :

비회원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

비 회원을 배우자로 가진 사람들은 늘 “내 남편(아내)에게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올바른” 해답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결정적인 질문은 “왜 나의 배우자는 복음 생활 방식에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일까?”이다. 치료의 성공은 진단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질문은 중요하다. 이 진단은 인내성있게, 천천히, 신중하게,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통찰력을 얻는 데에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회에 신뢰할 만한 친구나 역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진단하려는 여러분의 의도를 그 사람과 함께 의논할 수 있다. 여하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성신의 확신을 얻을 때, 여러분은 배우자로 하여금 복음이 그의 생활에 줄 수 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잘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다. 교회가 배우자의 여가 시간을 방해하는가? 친구를 잃게 될 것을 배우자는 두려워하는 것인가? 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습관이 있는가? 교회 회원과 나쁜 관계를 갖게 되었던 일이 있는가? 교회 교리나 예배 의식을 몰라서 모임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일은 없겠나?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작하는 질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복음 생활 방식을 원하는 영적인 갈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행해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그것을 기록하여 기도나 명상이나 권고로써 행동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기록해 놓지 않는 목표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리와 성약 9:8)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든지 인내심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점진적으로 작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압박감이라도 최소로 줄여야 한다. 인간의 개성과 성품은 대단히 완고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생활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급히 서두르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리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긴장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정서상의 무서운 굴곡을 이루게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결혼 생활로 두 사람을 묶는 정서적인 유대는 매우 강하다. 이러한 사랑의 유대는 상호간의 존경과 상대방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부부 중의 한 명이 상대방에게 교회 회원으로서 요구되는 개성이나 성품으로 바꾸라고 말한다면 반감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를 중용함으로써 배우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배우자를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을 설명해 주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헨리 맥케이씨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자랑으로 여기는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가댁 식구들을 만날 때면 처가댁에서는 딸이 비회원과 결혼함으로써 집안을 망신시킨 것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헨리는 느낄 수 있었다.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헨리는 더욱 수세에 몰렸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점차로 그는 아내의 가족들에게서 결점과 과오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에게까지도 화를 내곤 하였다.

민감하고 지각력이 뛰어난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곧 알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동반자였다. 그녀는 남편이 언젠가 교회에 들어와서 충실한 회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타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없는 동안에 있었던 가족의 연례 잔치에서 그녀는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녀는 가족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존중해 주고, 단지 복음 계획을 배우고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남편의 훌륭한 성품과 인간성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가족은 따뜻하게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헨리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자 그는 아내의 가족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생활을 그들과 조화시키려 하였다. 결국 그는 아내의 확신에 어긋나지 않게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복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일 때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모든 경직된 태도와 믿음을 녹이는 용액이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증진시켜 준다. 부부는 항상 명랑함과 신뢰심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과 격려와 발전에 대한 치하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배우자로 하여금 서로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된다. 특히 아버지로서 하여금 가족 회의, 가정의 밤, 오락 및 휴가 활동 등에서 인도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모든 수고와 조정은 사랑, 허심탄회한 태도,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증진시킨다.

태도와 믿음은 인생에 대하여 느끼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자주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할 때, 그들은 복음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자신의 마음을 열 것이다.

내가 선교부장이었을 때 나는 많은 개종자에게 교회에 들어온 이유를 물었다. 많은 경우의 대답은 "친구가 있어서요"라는 것이었다. 비회원은 일반적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란 복음의 원리를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우선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후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새로운 우정의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중심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우정의 결합이 없는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우정의 결합을 이룩하는 데 여러분은 적어도 처

음에는 사람 대 사람의 단위에서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많은 그룹이나 무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그들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일을 맡아 행하는 데 수줍어하는 사람은 더욱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활동 등은 점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가족끼리의 간단한 모임, 야유회 등이 좋을 것이다. 후에 비회원은 좀더 큰 규모의 오락 활동, 상호부조회나 신권회에서 갖는 건축 계획이나 복지 계획 등에 익숙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가 취미나 특기를 갖고 있는 운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어린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에게 가장 강하고 깊은 영향을 준다. 여러해 전 나는 남아이다호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 갖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교사 복음 토론 한 두 가지를 배워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르쳤다. 이 자녀들의 부모 중에는 비회원인 부모나 비활동 회원인 부모가 있었다. 그들은 부모가 활동 회원이 되어 신전에서 인봉을 받게 될 것을 바랐다. 복음 토론을 가르치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모로 하여금 교회 직책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심을 갖게 하였다.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가장에게 신권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용하였던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하였다. 진실로 자녀는 부모를 인도할 수 있으며(사 11:6 참조) 비회원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어떤 성공적인 기업체에서는 각 사무실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붙여 놓고 있다. "존 브라운이 사는 것을 존 브라운에게 팔려면 존 브라운의 눈을 통하여 물건을 보라." 비회원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이 표어가 말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로 할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때때로 일어나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예고(자아 의식)를 피하게 해 준다. 이러한 사랑은 인생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원하게 만들어 주고, "어떻게 내 아내, 남편, 자녀를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사랑이 가득하고 모범적이며, 충성스러운 가족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영적인 지침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의 좋은 점을 사랑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가진 좋은 성품과 덕성을 묵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얻었다. 이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시킬 때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가장 행복한 밑거름을 마련해 주게 된다. *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

캐드린 에이치 입슨

시다 마타엘레 로무의 소망은 다섯 명의 자녀들이 모두 통가에서 훌륭한 말일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사미우는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곤란, “당신은 너무 모임에 자주 기는데 좀 집에 있어 보라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와 같은 집회에서 그녀가 얻는 도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곳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힘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시타의 집에는 밭이 있어서 가끔 채소를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하곤 하였다. 그녀는 여기서 얻는 작은 수입의 십일조를 바쳤다. 그녀는 자녀에게 노동의 가치, 정직한 십일조의 가치,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가치 등을 가르쳤다.

“지금은 나를 따르거라” 그녀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빠를 따르게 될 게다.” 그러나 남편이 교회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고 있는 한 가정에서 조화와 화평을 유지하기란 몹시 어려웠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시타는 말하였다. “저의 가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걸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었지요.”

시타는 11형제의 가족 가운데서 자랐으며, 그녀의 부모는 신앙이 강한 말일성도였다. 그 마을에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 마타엘레는 선교사들에게 그의 집을 제공하여 예배당이 세워질 때까지 집회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할아버지의 집은 여러 해 동안 집회소로 사용되었다. 시타는 간증을 갖고 자랐다.

시타의 둘째 아들, 모제스가 통가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와 시타는 오랫동안 그의 가정과 종교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남편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기를 간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때로 월요일에 남편은 부인 시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왜 당신은 식사 안하오”라고 물었다. 그녀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금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얼마 동안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은 깊이 생각한 다음 부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항상 당신의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는걸 알고 있오. 내 것도 내 주구려.” 그달에 시타가 자기의 십일조 뿐 아니라 남편의 십일조를 바칠 때 시타의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1년 동안 시타와 모제스는 매주 월요일에 금식하였다. 하루는 모제스가 어머니에게 그날 저녁에 교회에 대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제스 혼자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걸 아버지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침례를 주고 싶어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미우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대해 생각했단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도 안다. 주님이 나와 네 엄마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도 많이 주셨고, 이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장성하였으니 아버지는 행운아지. 그래 나도 침례를 받고 싶다.”

사미우 로무가 침례를 받은 날 통가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그후 로무 가족은 하와이로 이주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자주 신전을 방문하고, 현재 카네알리 하와이 스테이크의 카일루아 제2와드에서 활동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시타는 때때로 자녀에게, “아버지를 따라라. 좋은 분이시다!”라고 말한다. *



친구를 교회로 인도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스펜서 제이 콘티

슈마쳐씨 부부는 두 자녀를 둔 훌륭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슈마쳐씨는 대단한 애연가였으나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모두 선교사 토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세 번 선교사와 공부한 후, 우리는 금식 주일인 다음 일요일에 함께 교회로 나가자고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일학교에 데리고 갔으며, 주일학교가 끝난 다음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하였습니다.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썩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영적인 모임이었으나, 거의 두 시간이나 걸렸으며, 우리는 이 두 부부가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간증회가 어땠느냐고 묻자 그들의 대답에는 전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슈마쳐씨의 대답은 냉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루에 갖는 모임 시간이 너무 길군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하루 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교회에 참석하고 싶을 때 참석하겠다고 그들이 말했을 때 우리는 저이기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을과 이웃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오락이나 영화나 운동 경기나 뱃놀이로 즐기는 날로 여기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잔디를 깎고,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자동차를 씻고, 텔레비전으로 야구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날로 여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슈마쳐 부부를 워드나 지부로 인도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그들 부부를 교회로 급히 초대할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일요일 야외 소풍에 초대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그러한 불안감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

리는 앞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슈마쳐 가족과 같은 우애와 사랑으로써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여러 해 전 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 형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여 주었습니다.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8페이지)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에 나오라고 권고하고 선교사와 토론을 가져 보라고 권유하기 전에 우선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임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2) 완전히 사교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거나 함께 놀러갑니다. (3) 교회 잡지나 선교사 소책자 등 읽을 만한 것을 줍니다. (4) 가정의 밤, 교회 보조 조직 모임, 노년의 모임, 기타 교회 사교 모임에 초대합니다. 이와 같은 세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한 다음 친구를 주일학교나 성찬식에 참석하게 할 때 우정은 더욱 강하여 지게 마련입니다.

일요일에 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식에 초대하는 것보다는 교회 복지 농장으로 초대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골프나 테니스나 수영을 하는 자매에게는 주일학교에 참석하라는 권유에 보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배구 시합에 초대하는 것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그의 취향에 따라서 워드 소프트볼 경기에 초대하거나 기타를 연주하게 하거나 장로 정원회 파티의 촌극 각본을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상호부조회의 가사 공과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고, 점차로 문화의 정수, 사회 관계,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서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초등학교와 아론 신권 및 청년회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로드쇼에서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아들이나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적인 곳, 신전, 방문자 센터, 그리고 구도자를 위한 사교 모임 등에 초대하는 것은 “규례에 규례를 더하는” 것이 되며, 복음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웃간에 갖는 파티는 이웃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회원을 교회의 다른 회원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한 후에, “루스, 빌, 다음 일요일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들은 전혀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슈마쳐씨 부부가 겪었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임에서 진행될 상황을 미리 알려 주어서 그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리 워드나 지부의 회원 친구들에게 일요일에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전 부탁이 없어도 회원들은 친절하지만 성도들이 따뜻하게 영접할 때 우리의 친구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어린 아기의 울음 소리로 교회 모임이 소란스러워질 때, 교회 모임에 대하여 부지불식간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 상황에 대하여 사과를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비회원 이웃에게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가족 단위에 대하여 확신을 시키고, 교회는 어린 아기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에 참석하도록 가르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일학교나 성찬식에서 짧은 말씀을 하면서 말을 더듬으면 우리 교회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정한 성도들이 이웃에게 “존즈 형제님, 존스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불쾌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혹은 자매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소의 현관은 교회 모임으로 항상 바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회원은 복음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진실로 기뻐한다는 점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경건성을 잃고 떠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범을 보이는가?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하는 것만이 우리의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통하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때 우리의 이웃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빨리 서두르라고 고함을 지르는 아버지, 불을 끄고 현관 문을 닫으면서 아기의 외투 단추를 끼워 주는 어머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이웃은 꼭마 단애라도 들어간 기분일 것입니다. 이웃이 마당에 나와서 일광욕을 할 때, 교회에서 집에 돌아온 여려분이 안도의 한 숨을 내몰아 쉬며, “아휴, 난 그 형제님이 결코 말씀을 끝내지 않을 줄 알았어. 말씀을 부탁받으면 준비를 좀 해야지, 그게 뭐람!”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웃집까지 들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과중한 교회 임무에 대하여 이웃 사람들 앞에서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초대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가치관, 태도, 견해 등이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고린도전서 9:19~20, 22)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과 교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끄러워 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지 마는 어떤 발은 다른 발보다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턴 대학의 대학원에 재학 중에 이것에 관한 가치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몇몇 친구를 선교사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교회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일보다는 학문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전도 시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와 동일한 시간을 소요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망이 없어!

주님의 사업을 훼방하려는 사탄의 술책의 하나는 교회에 참석하기를 꺼려 하거나 복음 토론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은 이미 가망이 없어!”라고 선교사와 회원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쌍의 선교사들과 오랜 동안 공부하여 교회로 개종한 개종자들은, 아무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한 때가 언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간파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16) 만일 아볼로가, 바울이 먼저 접촉하여 마음을 돌이켜 놓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계획했거나 시간을 잘못 맞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개종시킨 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너무나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권 지도자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이끌어 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에도 역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성 121:41~42)

충실하게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선교 사업에 들이는 수고를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교성 84:61) *



나는 수감자들을 가르쳤다

자네트 밀라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감옥에 수감된 상습범들에게 창작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처음에는 그 부탁을 거절했읍니다. 나는 죄수를 가르치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해지는 것이었읍니다. 아뭏든 나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였고 나 자신이 배우고 있는 단계였읍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또다시 부탁을 받았읍니다. 나는 그때 즉시 승낙했읍니다. 거의 충동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승낙의 말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이 가중되고 시험이 닥쳐 와서 필히 그만두어야 하게 되었을 때까지 10 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에 교도소에 나갔읍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모든 영혼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첫날부터 나는 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졌읍니다. 그들은 “당신은 달라요. 당신, 종교인이지요. 여기서는 종교 따위는 필요없어요”라고 말하했읍니다. 나는 몇 번이고 속으로 “나는 창작을 가르치려고 여기 온 거야”라고 말했읍니다. 결국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의 수업을 마쳤읍니다. 그때 나의 상태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읍니다.

둘째 토요일에는 약간 좋아졌읍니다. 성과도 향상되었읍니다. 세번째 토요일 역시 달랐읍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당신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달라요. 일주일 내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는데, 당신 혹시 물몬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꿀먹은 벼어리가 되었읍니다. 그들이 나의 종교를 점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읍니다. 아뭏든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심한 놀림이 퍼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이제는 당신에 대해서 추측할 거리가 없어져서 섭섭하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재미였는데, 하여간 알게 되니 기쁘군요”라고 그들은 말했읍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읍니다. 종교를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항상 창작보다는 종교에 대한 토론이 주가 되었읍니다. 물론 그들은 글을 쓰고 공부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글을 집으로 가져 가서 검토하여 종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많이 마련했읍니다.

수감자들 중에 캐빈이라는 사람은 예수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썼읍니다. 피터라는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그들의 명함과 물몬경까지도 갖고 있었읍니다. 그는 좀더 복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읍니다. 또 다른 수감자인 랄프는 결국 선교사와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물몬경을 읽었으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었읍니다.

교회 잡지와 물몬경이 교도소 안에서 회람되었으며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책자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책자는 찢겨져 결국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기까지 하였던 그들이었읍니다.

대부분 그들은 흔들거리는 낡은 책상에서 공부를 했읍니다. 어느 날, 쇠로 받침을 한 새로운 둥근 책상이 담요로 씌워져서 동그렇게 배치된 의자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변화를 준 것을 치하하였읍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요를 벗겼읍니다. 그것은 두 주간 동안 노력하여 만든 사랑의 결실이었읍니다. 그들은 책상을 짜 만들어 놓고는 페인트를 칠하였읍니다. 그들은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회색 고양이의 얼굴을 위에 그려 놓았읍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읍니다.

내가 맡은 반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모든 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때문이었읍니다. 원고지에 굵적 거러 놓은 수많은 질문을 일일이 답해 주기 위해 노력했읍니다. 신권회 회원들은 나를 많이 도와 주었읍니다.

나는 그 일을 사랑했읍니다. 또다시 기회가 오면 기쁘게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원이 원한다면 완전히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수감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종교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조지 디 더란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전교에서 12명뿐인 물론 학생 중의 한 사람인 15세의 매트와 그의 생활에 조그마한 위기가 닥쳤다. 문제 자체를 고쳐서는 안되며 단지 그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려내는 문제인 정오 문제 15번에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다시 문제를 읽었다.

“자칭 예언자라는 물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물론경을 썼다. 맞음 틀림”

매트는 이 문제만 올바르게 답을 적으면 이번 시험은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해야겠는가?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답은 “맞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틀림”인 것이다.

시험지를 제출해야 할 시각이 되었다. 답을 적거나 그냥 내거나 해야 했다. 매트는 재빨리 “자칭 예언자라는” 글을 지워버리고 “썼다”는 “번역했다”로 고치고는 “맞음”에 굵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다음날 출석을 부르신 선생님은, “매트,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다.

매트는 일어섰다.

“왜 15번 문제를 고쳤나?” 선생님은 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매트는 15번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요셉 스미스는 자칭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이구요, 또 물론경을 쓴 것이 아니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서, 물론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므니”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매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반원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15번 문제도 맞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우리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매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운” 기회를 우리는 포착해야 한다. 조금하게 굴거나 어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그의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단지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명랑하고 좋은 생각을 품고 교회의 표준을 지키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겠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곧 지나치게 위압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위압한다는 것은 대답을 요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회에 관하여 연설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교회에 대하여 연설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연설문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이였다. “3년 전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저는 여러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머리 속에는 여러분이 제게 대해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곳은 나의 고향이 되었고 이 학교는 나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장 정다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해 주셨던 친절을 생각할 때, 저는 위대한 물문 예언자이신 브리감 영이 서부에서 그곳에서 살 곳을 찾았을 때 하신 말씀이 새롭게 생각됩니다. 제가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아들의 자연스럽고 진지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수학 선생님의 훌륭한 생활이 학생들에게 대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친절한 태도와 훌륭한 생활 자체가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정한 사람이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를 선교사에게 소개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즐기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다. 종업원이 다가와서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물뿐이거든요.”

“물뿐이거든요”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게 된다. 때때로 종교에 대한 대화가 오가게 되고, 주소를 얻어서 선교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공박할 때,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

가 없다. 우리의 신앙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화를 내어서는 안된다. 자만하거나 뽐내지 말고 미소로써 반응을 보여야 한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물문이 거의 없는 동부로 이사를 갔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로 생각했다. 초대장을 보내기는 했으나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왔다.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웃이 그렇게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 후, 밤 늦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한 가족만 남게 되었다. 그들은 길 아래에 살고 있는 천주교 가족이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나이 또래였다. 그것이 깊은 우정이 시작된 동기였다. 그 집의 사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야구를 하러 오고, 여자 아이들은 우리 딸들과 솜바꼭질을 하며 놀곤 하였다.

어느 여름 밤에 아이들이 모여 놓고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은 반딧불을 쳐다보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아이들이 키우셨길래 저렇게 잘 적응하고 다정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교회와 가정의 밤에서 배운 거예요. 또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뭘들 못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가정의 밤에 초대했으며, 그들도 우리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 가족도 초대하였다.

그 가족의 아이들은 선교사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의 집에 오셔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집을 방문했으며,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오셨지요?”라고 선교사에게 질문했다. 선교사들은 가족에게 우리의 종교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천주교에 깊이 뿌리박힌 그들은 좀체로 종교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도시를 떠날 때 가장 슬픈 작별은 정다웠던 그들 친구와의 작별이었다. 지난 여름 그집의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만나러 유타주로 왔다.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업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일로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선교 사업이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갖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선교사를 소개시킨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 보시겠어요?”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어떻게 비회원을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최근에 개종한 몇 명에게 이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과 열의와 의견은 회원 선교사로서의 사업에 좋은 통찰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요?” 뉴 멕시코의 스프로크에서 온 17세 난나바호 소녀, 수 안 애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를 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한 갈색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예요.”

회원이 된 지 2년이 된 수 앤양은 자신이 개종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 주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가 죽으면 먼저 고인이 된 친구와 친척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당신이 죽은 후에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교회

에 대한 신앙을 잃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면 무슨 계명이든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수 앤은 인디안 보호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어했습니다. 유타주, 리치필드의 인디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고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리치필드에서 인디안 학생들은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그곳 학교에 다녔습니다.

기숙사 종업원 한 사람이 수 앤과 몇몇 친구들을 가정

회원 선교사

레이드 로버츠



의 밤에 초대하였을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읍니다. “그때에는 내가 물론 교회를 좋아할 지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교회에 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따라가 보았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때였지요. 흥미로운 것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후에 물론경을 읽었을 때, 많은 부분이 무척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할머니께서 나바호족의 전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얀 신에 대한 이야기도 할머니로부터 들었었죠”라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수 앤양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합니다. 최근에 그녀의 친구인 엘루이즈 메이어드양은 선교사 복음 토론을 마치고 침례를 받았읍니다. 수 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감독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의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오기로요. 그래서 엘루이즈를 데리고 왔지요. 교회에 대해서 그애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없다고 대답하기에 저는 “제 친구를 가르쳐 주시겠어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어요.”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출신인 22세 된 데이비드 워즈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우정이 그를 개종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유타 솔트레이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워즈나 장로는 선교 사업에서의 우정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저는 집을 떠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직장을 얻어서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저와 방을 같이 쓰던 친구 중의 하나가 말일성도였습니다. 우리는 곧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제게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을 주는 것같더군요.” 워즈나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청년 활동에 저를 데리고 갔읍니다. 그들은 연극을 하고 있었읍니다. 젊은이들이 다가와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즈나 장로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읍니다. “전에 만나 보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도 달랐고요.

“제가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회원들은 제가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 회원이라고 해서 저를 멸시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워즈나 장로는 침례를 받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이 방을 쓰고 있는 매사추세츠에서 온 또 다른 친구는 복음 토론을 하고는 거의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읍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저는 항상 자리를 피할 구실만 찾았지요. 단지 두려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제게는 단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의

주저함에 대해서 아무도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읍니다. 제 친구는 인내심이 강했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는 여전히 제 친구였습니다. 결국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죠.”라고 워즈나 장로는 말하였습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선교 사업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진실되고 참된 친구로서 대할 때,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회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친다는 일보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원리대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복음대로 생활한 결과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러분이 물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매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워즈나 장로는 말을 마쳤읍니다.

인내는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세의 신디와 동생인 14세의 티나 독스타터는 침례를 받기 전 2년 동안 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신디는 물론 가족의 단합과 친구가 데려가 준 교회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을 결심은 없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저희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도와 주었어요”라고 신디는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신디를 포기하지 않았읍니다.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이, “선교사와 공부해 보지 않을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까?”하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과학 선생님의 격려로, 신디와 티나는 금년에 침례를 받았읍니다. 과학 선생님인 래리 앤더슨 형제님이 그들을 침례주었습니다.

아이다호주 켈로그에서 온 18세난 바이오렛 윌슨도 침례를 받기 전에 여러 해 동안 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녀가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회원들이 그녀를 그들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21세의 그레그 로저스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형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생활하던 사람들 때문에 저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할 때, 저는 40번도 더 실망을 느껴 그만둘까 생각하게 되지만, 단 한번 성공이 되면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는 거지요. 저를 개종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도 그보다 더 여러 번 낙담을 했을 겁니다”라고 크래그는 말을 마쳤읍니다.

참다운 친구가 되는 것, 상대방의 가치와 신앙을 존중하는 것,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자신에게 솔직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비회원을 멸시하거나 그들과의 문을 닫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등이 회원 선교사가 되는 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 제언한 것들입니다.

수 앤 애지양은 선교 사업에 해당되는 또 다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요? 바빠지는 것을 충고해 드리고 싶군요.” *
* * *



is
Ne
IC

